

부모역할행동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ing Style Inventory(PSI)

김은정(Eun-Jeong Kim)¹⁾

김영아(Young-Ah Kim)²⁾

김유진(Yu-Jin Kim)³⁾

문수종(Soo-Jong Moon)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nd validate an instrument that can be used to measure critical aspects of a parent's attitude and behavior that influence child development and adaptation. This instrument is named Parenting Style Inventory and self-reporting assessment of parent for preschoolers. We reported findings from 578 preschooler's care-givers. Five factors were extracted from 55 items developed for preschooler version and finally 29 items were selected. Subscales were empathy, respect, parental authority, coerciveness, perfectionism. Internal consistency of these subscales were .77, .86, .70, .74, .68 relatively. Empathy, respect and authoritative scales were regarded as the basic dimensions of parent's behavior. For clinical validation, we divided the preschooler care-giver sample into 8 groups according to scores of the basic dimensions and compared the 8 groups with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elf-efficacy scor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ree basic factors would have different effects on parental experiences and satisfaction. We suggested the clinical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instrument.

Key Words : 부모역할행동검사(Parenting Style Inventory),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양육 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¹⁾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전문연구원

²⁾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전문연구원, (주)휴노 컨설팅 대표

³⁾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연구원, (주)휴노 컨설팅 연구원

⁴⁾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연구원, (주)휴노 컨설팅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Young-Ah Kim PhD, Hunoconsulting Co., Seoul 120-749, Korea

E-mail : youngkim@hunoconsulting.com

I. 서 론

자녀 양육은 부모의 주요한 발달 과업이자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과정으로 효과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과 성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개인적인 성숙에도 도움이 된다. 자녀 양육은 부모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경험이며 부모에게 중요한 지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인 요구가 뒤따르는 과정이고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결정하게 된다(Coleman & Karraker, 1997). 따라서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경험하는 만족감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자녀의 심리적 적응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모 양육 행동은 자녀의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예 : Cohn, 1990; MacDonald & Parke, 1984), 부모 역할과 관련된 양육 효능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예 : 최형성, 2005; Teti & Gelfand, 1991).

양육 행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는 양육 상황에서 부모가 특징적으로 보이는 행동방식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녀가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부모-자녀 관계 및 양육 상황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행동 방식이기도 하다. 부모의 양육 행동은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오랫동안 연구들이 진행되어 온 반면, 학자들마다 중요하게 다루는 양육 행동에 대한 평가 차원들이 다르고 이에 따라 평가 방법과 내용이 다양하여 일관적인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다.

기존의 부모 양육 행동에 대한 평가차원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제한점과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행동의 평가 차원과 관련된 것이다. Schaefer(1959)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크게 돌봄(warmth)과 통제(control)차원으로 나눈 이후로, 후속 연구들은 이 기본적인 차원에 대한 경험적인 결과들을 일관성 있게 보여 주고 있다(Parker, Tupling, & Brown, 1979; Rapee, 1997; Schwarz & Mearns, 1989). 돌봄 차원은 따뜻함 및 수용과 거부의 양극으로 이루어지며, 통제차원은 과보호 및 과잉개입에서 자율성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축이다. 이 두 가지 부모 양육 행동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척도가 바로 Parker(1979)의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이다. 이 척도는 자녀의 다양한 심리적 적응 측면과 연결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정상적인 집단과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을 비교 하는 연구들인데, 아동의 심리적 문제 중 내현화 증상을 보이는 집단과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집단을 비교 하거나(Burbach, Kashani & Rosenberg, 1989), 다양한 정서 장애 증상(우울증상, 불안증상)을 보이는 집단들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Alnates & Torgerson, 1990). 이 두 가지 기본 차원에 기초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거부와 과잉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Planters, Prusoff, Brennan & Parker, 1988).

긍정적-부정적 차원 혹은 적응적-부적응적 차원이라는 양극차원에 기초한 척도들의 가정은 부모 양육 특성이 패턴화 된 유형을 갖고 있으며, 양극단의 성향을 동시에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현미숙, 2004). 양극을 가정한 차원은 정상집단과 심리적 부적응 혹은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집단을 변별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상 집단 내에서 개인 차이를 확인해 보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차원은 일상적인 양육 상

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모행동을 예측하거나,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특징적인 부모 역할행동들을 포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양극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영역으로 부모 역할을 세분화하여 평가 차원들이 나오고 있다. PBI는 요인분석 결과, 과보호 요인이 과잉간섭요인과 자율성 존중 요인으로 구분되어 애정, 과잉간섭 및 자율성 존중 세 가지 요인이 확인되었다(문경주·오경자, 2002). 이외에도 김정아(1990)는 Crase, Clark 그리고 Pease가 개발한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 Mother Form)을 변안하여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반응성, 합리적 지도, 친밀성 등의 5개 하위 요인을 포함하는 척도(총 27문항)를 개발하였고 박영애(1995)는 Schaefer(1959)의 모델에 기초하여 온정 및 수용, 거부 및 통제, 허용 및 방임의 3가지 차원을 가정한 척도(총 80문항)를 만들었다. 또한 박성연과 이숙(1990)은 Block등(1984)의 척도를 기초로 애정, 거부 및 통제, 과보호, 일관성, 독립성 지향의 5개 하위 요인을 가정하였다. 현미숙(2004)의 부모역할지능척도는 공감, 격려, 증진 및 합리적 권위를 포함하는 발달 촉진요인과, 융통성, 거부, 수용을 포함하는 양육 요인 그리고 통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 양육 행동에 대한 평가 차원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세분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다양한 차원은 상세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다양한 양육 상황에 역동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경험적인 연구 결과에 기초한 기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부모 개인의 특징적이고 역동적인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평가 차원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

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양육행동은 부모와 자녀의 기질 및 성격 특성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lsky, 1984; Shumow & Lomax, 2002). 구체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자원, 자녀의 성격 특성 및 양육관련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 체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Crnic & Greenberg, 1990; Eiden, Teti, & Corns, 1995). 예로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은 부모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이는 양육 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Lytton, 1990), 자녀가 반항적이거나 과잉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부모가 과도한 통제행동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Anderson, Lytton, & Romney, 1986). 부모 양육 행동은 또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각 발달 단계에서 자녀의 긍정적인 적응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행동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발달과정 상 특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모 역할행동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인간지향적인 부모 자녀 관계가 지위 지향적인 관계보다 유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아동 후기나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이러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신건호, 2004). 여러 연령층이나 발달단계에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녀의 발달단계 상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자녀의 개인적 욕구 표현이나 발달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양육 행동이다. 이런 특성에 기초하여 양육 행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양육 행동이라는 개념 보다는 자녀의 특성이나 발달 단계에 따른 요구 및 행동 특성에 기초한 적절한 양육 역할이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들 역시 연령에 따른 효율적인 부모 양육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을 언급하고 부모 역할의 중요한 영역으로 발달 자극 역할을 가정하고 있다(현미숙, 2004). 따라서 부모 역할 행동 척도는 각 연령층에 해당되는 행동 특성이나 발달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평가 차원을 반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육행동의 평가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양육 행동에 대한 평가 방법은 부모가 직접 자신의 행동을 평가 하는 방법과(예 : 김정아, 1990; 현미숙, 2004)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지각한 것을 평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예 : 허묘연, 2000; 문경주·오경자, 2002). 평가의 주체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평가 간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2). 따라서 한쪽의 평가 자료에 기초하여 결과해석 시에는 상대적인 제한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부모역할척도들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개관한 후, 부모 역할 행동의 기본 차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긍정적 차원은 공감적인 행동, 수용적 존중 및 합리적 권위행동을 포함하고 부정적 차원은 강압적 성향과 완벽주의적 행동을 포함한다. 이는 Schaefer(1959)의 양육 행동 모델에서 돌봄의 차원을 공감과 존중으로 분류하고, 통제의 차원을 권위 있는 행동과 강압으로 나눈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녀의 행동 결과와 타인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부모 역할 행동은 적절한 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의 도덕성 발달과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관이나 기준을 내면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umrind, 1978). 아울러 합리적 권위 행동은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요구되는

집단의 규범 준수에 적합하며,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적 자아 개념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건호, 2004). 이러한 근거로 적절하고 긍정적인 의미의 통제행동의 의미로 합리적 권위행동이라는 차원을 가정하였다. 또한 Holden & Ritchie(1988)이 가정한 자녀의 요구에 적절한 심리적 사회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양육 역할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차원이라 할 수 있다. 각 하위 척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공감적인 행동은 감정이입 반응 및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이다. 공감적인 행동은 부모 자녀 간의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촉진시키며, 자녀의 불편한 감정과 심리적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여 줌으로써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수용적 존중 행동은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격려해주고 자녀의 개인적인 욕구나 의사 표현을 수용해 주는 행동이다. 이는 자녀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기 가치감과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존중 행동은 기존의 양육차원 중 통제차원의 긍정적인 축인 자율성 존중과 관련된다. 또한 기존의 양육 차원 중 돌봄의 차원과는 정서적인 관심이 아니라 발달적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격려와 이성적인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개념적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권위 행동은 자녀 양육 상황에서 부모라는 지위에 초점을 두고 적절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규율 습득, 행동에 대한 분명한 피드백 제공 및 양육의 일관성 유지 등 합리적인 통제행동을 말한다. 이 차원은 기존의 통제 차원의 부정적인 축인 과보호 및 과잉개입 행동과는 달리 보다 긍정적인 측면의 부모 개입을 강조한 것이다.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피드백과 평가 기준을 제공해

중으로써 자녀가 환경통제와 관련된 통제능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본 척도에는 강압적인 성향과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성향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본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 하위 척도가 양육 행동의 질적인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강압적인 성향은 자녀에게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충동적으로 표현하거나, 기대하는 대로 자녀가 행동하지 않을 때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기 보다는 부모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대하는 성향을 말한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자녀 발달과 양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너무 높거나 부모 자신이 기대하는 바대로 양육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 나가려는 성향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발달 단계 특성과 관련된 부모 역할 행동을 평가 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영아기부터 사춘기 이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보이는 양육 행동의 기본적인 차원을 확인하고 나아가 자녀의 기질적 특성 및 발달적 요구에 적절한 부모의 양육 역할 행동 간의 짝짓기 틀을 구성하고자 하는 연구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 행동을 앞서 가정한 5가지 하위차원에 근거한 평가 도구를 제작하고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 척도간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개인의 성향이나 양육 상황의 특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측정 보다는 자녀의 발달 단계와 기질적인 특성에 적합한 부모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모 양육 행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부모 역할 행동 검사라고 표현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A사의 교육 보험에 가입한 생후 36개월에서 초등이전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혹은 어머니 역할을 하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온라인 설문검사가 실시되었다. 설문

〈표 1〉 유아기(36개월-초등시기이전) 표본의 특성

	변 인	표본 수	비율
성별	여아	264	45.7
	남아	314	54.3
연령	36-48개월 미만(만3세)	145	25.1
	48-60개월 미만(만4세)	163	28.2
	60-72개월 미만(만5세)	155	26.8
	72-84개월 미만(만6세)	65	11.2
	미기재 혹은 오기재	50	8.7
총 표본 수		578명	100%

〈표 2〉 유아 표본의 양육자 특성

	변 인	표본 수	비율
주양육자	어머니	235	40.7
	어머니 이외의 가족	38	6.6
	보모	11	1.9
	어머니와 기타양육자	41	7.1
	기타(전일제 보육기관등)	249	43.1
어머니 직업유무	미기재	4	0.7
	예	306	52.9
	아니오	267	46.2
어머니 근무형태	미기재	5	0.9
	전일 근무제	218	37.7
	파트 타임	50	8.7
	재택 근무	46	8.0
기타		2	0.3
총 표본 수		578명	100%

에 응한 경우, 이와 관련된 결과를 한 달 후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하였으며, 검사 실시 기간은 2005년 7월- 8월 1달간이었다. 설문에 응한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혹은 어머니 역할을 하는 양육자)는 총 578명이었으며, 설문에 응한 아동과 양육자의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는 <표 1>과 <표 2>와 같다. 검사실시자가 어머니인 경우는 548명(94.8%)였고, 아버지인 경우는 28명(4.8%), 기타 2명(0.4%)이었다.

2. 측정 도구

1) 부모역할행동 척도

부모역할행동 척도는 본 연구에 참여한 3명의 임상심리학자들이 5개의 기본 차원과 관련된 양육 행동들을 여러 관련 척도들을 기초로 수집한 다음, 부모가 보다 신뢰롭고 용이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특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표집들을 구성하여 일차적으로 55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부모역할행동 척도는 자녀의 발달을 촉진 시키는데 기여하는 정서적 공감, 긍정적 존중 및 합리적 권위의 기본 세 가지 하위 척도와 추가적인 평가 척도로 강압적 성향과 완벽적 성향으로 최종적으로 29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공감 척도는 감정이입 반응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포함한다(예, 5. 나는 아이와 서로 감정이 통할 때가 많다. 2. 아이가 기운이 없어 보이면 “어디 아프니?” “속상한 일 있니?” 등 아이의 감정을 챙겨 물어 본다.). 긍정적 존중행동 척도는 자녀의 욕구에 대한 존중 및 긍정적인 발달 및 변화에 대한 격려 행동이 포함된다(예, 10. 처음 하는 행동이 서툴러 보이더라도, 아이가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를 해 준다. 13. 아

이가 고집을 부리며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 그리고 합리적 권위행동은 자녀의 규율습득 및 올바른 행동 습관 형성과 관련된 양육 행동을 말한다(예, 19.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때를 쓰고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강압적 성향과 완벽주의적 성향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표현 및 완벽주의적 기대 성향을 평가 한다(예, 29.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고집을 피워서 밀치거나 때린 적이 있다. ; 26. 내 머릿속은 아이의 학습과 관련된 계획이나 기대로 가득 차 있다.). 연령에 따라 자녀 양육 상황이나 발달 수준 및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과 요구특성을 반영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하위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2) 부모 양육 스트레스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신속재(1997)가 사용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에서 규율습득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추가하여 총 1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하위 척도는 자녀기질 스트레스, 부모-자녀 관계 스트레스, 규율습득 스트레스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각각 .75, .74, .73 이었고, 전체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68이었다.

3) 부모 양육효능감

양육 효능감척도는 Bandura(1997)의 자기 효능감 개념에 기초한 신속재(1997)의 양육 효능감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제작되었다. 이 척도는 자녀에 대한 이해,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능력, 및 양육 상황에 대한 통제감이라는 세 가지 하위 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의 내적 신뢰도

는 각각 .77, .68, .74 이었고, 전체 양육효능감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76이었다.

III. 연구 결과

1. 부모 역할 행동 척도의 신뢰도

부모 역할 행동 척도는 정서적 공감, 긍정적 존중, 합리적 권위 및 강압적 성향과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총 5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하위 차원의 문항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해 본 결과 정서적 공감 .77, 긍정적 존중 .86, 합리적 권위 .70, 강압적 성향 .74, 그리고 완벽주의적 성향 .68로 각각 나타났다. 각 하위 척도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강압적 성향과 합리적 권위 간의 상관관계를 제외 한 모든 하위 척도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 $p < .001$). 정서적 공감과 합리적 권위는 $r = .35$ 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적 존중과 합리적 권위도 $r = .35$ 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정서적 공감과 긍정적 존중은 다른 하위 척도에 비해 $r = .63$ 의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바람직한 역할 행동인 정서적 공감,

<표 3> 부모역할행동검사 하위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

하위 척도명	문항수	평균	표준 편차	Cronbach의 알파
정서적 공감	5	10.70	2.60	.77
긍정적 존중	12	20.68	5.68	.86
합리적 권위	4	9.14	2.14	.70
강압적 성향	4	4.45	2.20	.74
완벽주의적 성향	4	5.14	2.39	.68

<표 4> 부모역할행동 검사의 하위 요인간 상관관계

	정서적 공감	긍정적 존중	합리적 권위	강압적 성향	완벽주의적 성향
정서적 공감	1	.63***	.35***	-.36***	.21***
긍정적 존중		1	.35***	-.3***	.19**
합리적 권위			1	0.004	.15**
강압적 성향				1	.12**
완벽주의적 성향					1

** $p < .01$ *** $p < .001$

긍정적 존중은 강압적인 성향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합리적 권위와 강압적인 성향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나머지 역할 행동들과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만,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2. 부모역할행동척도의 요인 분석 결과

부모역할 행동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 문항 총 55개에 대해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varimax 방식으로 회전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Scree 검사를 한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이 7개가 나왔으나 검사의 이론적 배경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5개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요인 부하량이 두 개 이상의 요인들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문항들과, 한 개의 요인에 부하되었다 하더라도 그 값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문항들을 포함한 총 22개의 문항들을 제외하였다(Floyd & Widaman, 1995). 분명한 요인부하패턴을 갖는 문항들로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하여 남은 33개의 문항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 분석을 재차 실시하였고,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항 제외 기준을 다시 적용하여 4개의 문항을 추가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9개의 문항을 선

〈표 5〉 부모역할행동검사 요인분석결과

문 항	요 인				
	존중	공감	강압	권위	완벽
10. 처음 하는 행동이 서툴러 보이더라도, 아이가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를 해 준다.	.68				
7.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라도,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	.57				
14. 아이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편이다.	.57				
13. 아이가 고집을 부리며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	.55				
9. 아이가 규칙을 어긴 행동을 하면 그 이유를 궁금해 하며 아이의 생각을 물어 본다.	.55				
11. 아이가 나를 도와준다며 나설 때,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격려해 준다.	.54				
15. 아이가 처음 시도하는 행동인 경우에는 다소 위험해 보이더라도 옆에서 지켜봐 준다.	.53				
8. 아이가 놀다가 맘대로 잘 되지 않아 속상해 할 때는 힘들어 하는 것이 뭘지 들어 보고 이해하려고 한다.	.49				
17. 일상생활에서 “하지 마라.” 라는 표현보다 “해 봐.” 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한다.	.48				
12. 아이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부족하더라도 아이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한다.	.46				
16. 아이에게 조금 험거운 일이라도 시도해 보도록 격려한다.	.46				
6. 아이의 학습(한글공부, 셈) 속도에 상관없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과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칭찬해준다.	.42				
5. 나는 아이와 서로 감정이 통할 때가 많다.	.64				
1. 나는 아이를 자주 안아 주고 좋아한다는 표현도 자주 한다.	.61				
4. 나는 아이를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 진다.	.50				
3. 나와 아이는 서로의 기분을 잘 알 수 있다.	.45				
2. 아이가 기운이 없어 보이면 “어디 아프니?”, “속상한 일 있니?” 등 아이의 감정을 챙겨 물어 본다.	.43				
29.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고집을 피워서 밀치거나 때린 적인 있다.			.66		
23. 아이가 잘못을 하면 손부터 올라간다.			.64		
24.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가 내 말을 들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혼을 낸다.			.61		
25. 아이를 가르치다가(한글, 숫자공부 등) 답답하면 화가 나서 야단을 친다.			.53		
19.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때를 쓰고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80	
18. 음식점 등에서 아이가 소란스런 행동을 하면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제지를 한다.				.77	
20. 아이의 생활 습관(TV 시청, 손발 씻기, 기상, 취침 시간 등)에 대해 분명히 통제를 한다.				.43	
21.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한다.				.37	
26. 내 머릿속은 아이의 학습과 관련된 계획이나 기대로 가득 차 있다.					.71
27. 내 머릿속에는 아이의 발달과 관련된 완벽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					.62
22. 내 계획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59
28. 아이가 내 기대대로만 자라 준다면 만족스러울 것이다.					.42
아이센 값	4.10	2.30	1.99	1.88	1.67
설명변량	14.15	7.92	6.87	6.48	5.76
누적변량	14.15	22.07	28.94	35.42	41.18

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요인은 모두 5개 요인으로서 각각은 차례대로 긍정적 존중, 정서적 공감, 강압적 성향, 합리적 권위 및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명명되었다. 강압적인 성향의 설명변량과 합리적 권위의 설명변량이 각각 6.87과 6.48로 비슷하였다.

3. 부모역할행동척도와 양육 관련 척도들 간의 관계

부모 역할 행동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양육 상황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효능감 수준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았다. 부모역할행동 각 하위 척도와 양육 효능감 총점과 양육 스트레스 총점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였다($p < .001$). 정서적 공감, 긍정적 존중, 합리적 권위는 양육 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양육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강압적 성향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양육효능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양육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완벽주의적 성향은 양육 효능감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양육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부모 역할 행동 척도에 기초한 하위 집단들의 특성 비교

부모역할행동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기본적인 세 가지 역할행동 차원인 정서적 공감, 긍정적 존중 및 합리적 권위 차원에 기초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는 세 가지 기본 차원이 실제 양육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행동 차원인지를 확인해 보고

〈표 6〉 부모역할행동 척도와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정서적 공감	긍정적 존중	합리적 권위	강압적 성향	완벽주의적 성향
양육효능감	.56***	.48***	.28***	-.39***	.22***
양육 스트레스	-.49***	-.35***	-.27***	.44***	-.03

*** $p < .001$

세 가지 차원에 기초한 하위 집단 구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다. 세 가지 기본 차원의 평균에 기초하여 평균 이상과 평균 미만의 기준에 따라 총 8 집단이 구분되었다.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 상에서 8개 집단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F=25.90, p < .001$; $F=20.47, p < .001$). 8개 집단 중 정서적 공감, 긍정적 존중 및 합리적 권위에 있어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인 1유형 집단이 양육효능감은 가장 높고, 양육스트레스는 가장 낮았다. 총점에서는 비슷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집단들, 예를 들어 정서적 공감과 긍정적 존중 점수는 높고 합리적 권위 점수는 낮은 2유형과 정서적 공감과 합리적 권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긍정적 존중의 점수가 낮은 3유형의 경우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양육효능감은 높고 양육스트레스는 더 낮았

- 1) 공감평균=10.70, 존중평균=20.68, 권위평균=9.14 1유형=균형형(공감 \geq 10.70, 존중 \geq 20.68, 권위 \geq 9.14) 2유형=민주형(공감 \geq 10.70, 존중 \geq 20.68, 권위 \leq 9.14), 3유형=역할충실형(공감 \geq 10.70, 존중 \leq 20.68, 권위 \geq 9.14), 4유형=애정형(공감 \geq 10.70, 존중 \leq 20.68, 권위 \leq 9.14), 5유형=교육자형(공감 \leq 10.70, 존중 \geq 20.68, 권위 \geq 9.14) 6유형=존중형(공감 \leq 10.70, 존중 \geq 20.68, 권위 \leq 9.14), 7유형=관리형(공감 \leq 10.70, 존중 \leq 20.68, 권위 \geq 9.14), 8유형=관망형(공감 \leq 10.70, 존중 \leq 20.68, 권위 \leq 9.14).

〈표 7〉 각 집단 간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 수준 비교

유형구분	1유형 n=183	2유형 n=33	3유형 n=62	4유형 n=30	5유형 n=56	6유형 n=20	7유형 n=112	8유형 n=82	합계 n=578	Fa
효능감	25.75 (4.98)	23.76 (5.40)	23.73 (4.95)	21.50 (4.10)	22.68 (5.15)	20.85 (4.40)	19.02 (4.97)	18.56 (4.33)	22.41 (5.63)	25.90***
스트레스	8.49 (5.04)	10.61 (4.51)	9.56 (5.30)	11.70 (6.24)	12.20 (6.65)	15.35 (7.91)	14.83 (7.41)	16.62 (7.27)	11.86 (6.92)	20.47***

*** $p < .001$

a 사후분석결과. 양육효능감(1 vs 2345678, 2 vs 1678, 3 vs 14678, 4 vs 1378, 5 vs 178, 6 vs 123, 7 vs 12345, 8 vs 12345), 양육스트레스(1 vs 45678, 2 vs 678, 3 vs 5678, 4 vs 1678, 5 vs 1378, 6 vs 1234, 7 vs 123458, 8 vs 123457) 자유도. 양육효능감 $df=(7, 570)$, 양육스트레스 $df=(7, 569)$

지만 두 집단과 다른 유형 집단과의 사후분석양상은 동일하지 않았다. 반면 양육 효능감이 가장 낮고 양육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집단은 7유형 집단과 8유형 집단으로 나타났다. 8유형 집단은 정서적 공감, 긍정적 존중, 합리적 권위 모두 낮은 집단이며, 7유형 집단은 정서적 공감과 긍정적 존중 점수는 낮지만, 합리적 권위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었다. 7유형과 8유형에 대한 사후분석을 보면 양육효능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양육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 가지 하위 요인이 양육 상황에서의 부모의 주관적인 경험과 만족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양육 상황에서 보이는 역할행동을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양육 차원에 대한 제한점에 기초하여 양육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부모 역할행동들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검사의 하위 차원은 정서적 공감 행동, 긍정적 존중행동 및 합리적 권위행동을 포함하는 긍정적 차원과 강압적인 성향 및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구성된 부정적인 차원으로 나뉜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개발한 부모 역할행동검사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심리측정학적으로 만족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역할 행동검사의 요인구조를 확인해 보고자 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총 29문항이 5개의 하위 요인으로 적절하게 묶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기대하는 방향대로 나왔으나, 정서적 공감과 긍정적 존중은 독립적인 차원으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두 차원간의 연관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유아기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감정이입적 반응과 자녀의 자발적인 행동이나 욕구 표현에 대해 긍정적인 지지를 보이는 반응이 어떤 면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음을 보여 준다.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는 차원이지만, 부모의 역할 행동 면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준다는 측면에서 유

사점이 존재한다.

셋째, 부정적인 차원일 것으로 가정한 강압적인 성향과 완벽주의적 성향을 살펴보면, 강압적인 성향은 공감요인, 존중요인, 합리적 권위 요인들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완벽주의적 성향은 나머지 요인들과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완벽주의적 성향은 강압적인 성향과는 달리, 바람직한 부모 역할 행동들과의 관계가 선행적인 관계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즉, 어느 정도 수준의 완벽주의적 성향은 바람직한 역할 행동을 촉진시키거나 자녀의 발달에 일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부모 스스로 바람직한 역할행동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함께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부모 역할 행동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험 및 양육 효능감 수준과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각 하위 척도간의 상관관계는 완벽주의적 성향 이외에는 기대하는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완벽주의 성향은 양육 효능감과 유의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양육 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높은 부모일수록 스스로 양육 상황에 대해 통제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분명한 목표 의식과 철저한 계획 수립에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양육 효능감이란 주관적인 보고에 기초해서 부모로서 역할에 대한 이해와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감 및 자신감을 평가 하는 것이므로, 자녀 양육에 대해 완벽주의적인 기대와 계획

을 가진 부모들일 수록 양육 효능감을 높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공감과 긍정적 존중 및 합리적 권위 행동 수준에 기초하여 집단을 구분한 뒤, 이들 집단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을 비교해 본 결과, 부모가 지각한 양육 효율성에 부모역할이 미치는 영향이 단지 양적인 차이 이상의 질적인 의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 가지 하위 요인이 양육 상황에서의 부모의 주관적인 경험과 만족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예를 들어 총점에서 비슷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2유형 집단(정서적 공감과 긍정적 존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합리적 권위 점수가 낮음)과 3유형 집단(정서적 공감과 합리적 권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긍정적 존중의 점수가 낮음)은 3유형의 집단이 2유형 집단과 양육효능감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양육 스트레스는 더 낮았다. 또한 4유형(정서적 공감만 높음), 6유형(긍정적 존중만 높음), 7유형(합리적 권위만 높음)의 경우도 부모역할행동 총점은 유사할 수 있지만 7유형이 양육 효능감이 가장 낮았고, 양육 스트레스는 6유형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양극 차원 척도보다 부모역할행동을 설명하고 지도하는데 개별화된 정보를 제공해준다. 특히 합리적 권위는 어떠한 맥락에서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공감과 긍정적 존중의 행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합리적 권위가 두드러진 양육 행동은 오히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 상황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 스스로도 양육과 관련된 효능감을 갖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유아기에서 요구되는 발달적 특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앞으로 양육 역할 행동의 기본적인 차원

에 기초한 다양한 하위 집단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본 척도는 최근 개발된 현미숙(2004)의 부모 역할 지능 척도의 세 가지 하위 차원 중 양육 역할 차원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 여기서 양육 역할이란 부모가 자녀의 단기적인 욕구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Holden & Ritchie, 1988; 현미숙, 2004 개인용). 현미숙(2004)의 연구 결과에서도 요인 분석 결과, 공감과 격려, 합리적 권위 및 증진은 발달을 자극하는 역할과 관련되어 발달 자극 역할로 명명되었다. 따라서 본 척도는 자녀의 발달을 자극하고 긍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요구되는 부모의 적절한 역할 행동을 평가하는 척도라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문경주와 오경자(2002)도 부모 양육 행동의 주된 차원으로 애정, 과잉간섭 및 자율성 존중 세 가지 요인을 가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척도와 유사한 하위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본 척도에서는 기본 세 가지 척도 이외에 부가적인 두 가지 차원을 첨가함으로써 기본적인 차원의 역할 행동의 질적인 측면을 추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역할 행동척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성이 기대된다. 첫째, 세 가지 기본 하위 척도인 정서적 공감, 긍정적 존중 및 합리적 권위 행동은 부모의 다양한 양육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척도이면서도 다양한 연령층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하위 척도이다. 그리고 추가로 포함되어 있는 강압적인 성향과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양육 방식을 높은 수준에서 보이는 부모들 중에서도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 특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며, 아울러 부모의 양육 패턴을 좀 더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효과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

구결과는 부모역할행동 혹은 양육방식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녀 발달 및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절하고 바람직한 행동 방식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본 척도는 적응적인 집단과 부적응적인 집단을 구분해 주는 행동 양식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육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부모 행동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발달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효율적인 양육 행동 차원에 대한 평가는 부모 개개인에게 부족한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바람직한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이런 맥락에서 자녀에게 적합한 부모의 역할행동 짝짓기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바람직한 양육 행동 중에 보다 집중적으로 가치를 두고 증가시켜야 할 부분이 달라 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양육방식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지만, 각각의 자녀에게 맞는 맞춤형 양육 방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나 정보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다양한 짝짓기 방식이나 조합을 확인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상대적인 효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 역할 행동 척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다른 부모 양육 행동 척도들과의 공존 타당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다차원적인 부모 역할 행동에 대한 척도들(현미숙, 2004)과 비교해 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경험적인 근거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연령별 발달적 차이를 고려한 척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 척도간의 비교가 가능하게끔 연령별 척도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개발한 부모 역할 행동 검사는 하위 척도들의 문항 수가 동일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는데, 이처럼 균등하지 않은 문항 수에 대해서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 점수화하여 비교하는 채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 차원 중 공감 행동과 긍정적 존중 행동을 보다 서로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분해 줄 수 있는 문항들을 포함하여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경주·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1(1), 29-43.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 행동 및 형제 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최영희·박인전(2002). 어머니의 성격 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의 지각 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3(2), 71-88.
- 박성연·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 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신건호(2004). 부모자녀관계유형이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8(4), 97-113.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은경·오경자(2004). 부모-자녀 상호작용 평가 척도의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3(3), 789-813.
- 최형성(2005). 양육 효능감의 매개 역할 : 양육행동의 인과관계 모형. **아동학회지**, 26(6), 351-365.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 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현미숙(2004). 아동 부모교육·상담을 위한 부모역할 지능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nderson, K., Lytton, H., & Romney, D. (1986). Mothers interaction with normal and conduct-disordered boys : Who affects Whom? *Development Psychology*, 22, 604-609.
- Alnates, R., & Torgerson, S. (1990). Parental representation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Anxiety disorder and mixed condition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1, 518-522.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Company.
- Baumrind, D. (1978). Reciproc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parent-child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34(2), 179-196.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lock, J. H., Block, J., & Morrison, A. (1981). Parental agreement-disagreement on child-rearing orientations and gender-related personality correlat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2), 965-974.
- Block, J. H., Block, J., & Rovers, G. C. (1984). Continuity and change in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55, 586-597.
- Burbach, D., Kashani, J. H., & Rosenberg, T. K. (1989). Parental bonding and depressive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417-429.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 opment, 61, 152-162.
- Coleman, P. K., & Karraker, P.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ruse, S. J., Clark, S. G., & Pease, D. (1978).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Cri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Eiden, L. D., Teti, D. M., & Corns, K. M. (1995). Maternal working model of attachment, marital adjust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6, 1504-1518.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s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 286-299.
- Holden, G. W., & Ritchie, K. L. (1988). Child Rearing and the Dialectics of Parental Intelligence. In J. Valsiner(Ed.). *Parental Cognition and Adult-Child Interaction*, 30-59. New Jersey : Ablex.
- Loeber, R., & Dishion, T. J. (1984). Boys who fight at home and school : Family conditions influencing cross-setting consistency.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2, 759-768.
- Lytton, H. (1990). Child effect-still unwelcome? Response to Dodge and Wahler. *Developmental Psychology*, 61, 311-346.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atterson, G. R. (1977). Accelerating stimuli for two classes of coercive behavi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5, 335-350.
- Planters, M. M., Prusoff, B. A., Brennan, J., & Parker, G. (1988). Parental representations of depressed outpatients from a USA samp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 149-155.
- Rapee, R. M. (1997). The potential role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 47-67.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chwarz, J. C., & Mearns, J. (1989). Assessing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 A comparison of parent, child, and aggregate ratings from two instrumen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3, 450-468.
- Shumow, L., & Lomax, R. (2002). Parental efficacy : Predictor of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outcomes. *Parenting : Science and Practice*, 2(2), 127-150.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2006년 4월 30일 투고 : 2006년 7월 4일 채택